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4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아름다운 학연을 위하여

오 성 환(경제학부 교수)

안녕하십니까. 학부소식지를 통해 선후배 동문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학교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은 겨울빛이 역력합니다. 이제 눈만 오면 영락없는 겨울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건승 하시기를 빕니다.

가끔 연(緣)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세상사가 혼탁하여 이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 병폐의 원인인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들 말을 입에 올릴라치면 의혹의 눈길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같은 연(緣)을 이용하여 뭔가 이득을 보고 나쁜 것은 덮어 버리려 하는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연(緣)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물론 불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연(緣)이란 끊어야 할 족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속세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연(緣)이 없다면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연줄이 끊어져 허공으로 사라져 가는 연(鳶)의 심정일 것입니다. 생떽쥐베리는 우편야간 비행시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도, 사막에 추락한 후 물 한모금 못 먹으면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인간의 연(緣)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緣)이란 우리들 하나하나를 이어주고 지탱하여 주는 끈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연(緣)으로 서로 얽켜 살기 마련입니다. 하많은 연(緣)중에서 그 으뜸은 혈연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연(緣)이 없었다면 우리는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피로 맺어진 연(緣)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혹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식들을 통해 이 연(緣)은 지속됩니다. 참으로 질긴 연(緣)이지요.

순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앞서 말한 세 연(緣)중 막내자리는 지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라난 땅의 연(緣)이란 어린탓에 선택의 여지가 좁다는 점에서 혈연과 비슷하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혈연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과 능력이 함께하는 학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저 깊은 한켠에 자리하는 어릴 적 기억과 향수를 머금고 있는 지연은 어찌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혈연과 무정한 선택이 따르는 학연의 가운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련한 맛은 있으되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는 중추가절이나 송구영신의 절기에 고향에 부모나 혈육이 없는 경우 우리가 과연 고향행을 감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자명해 집니다. 혈연이 없는 지연이란 붕어가 없는 붕어빵 수준이 아닐까요.

따라서 혈연 다음은 학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가 거의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후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진 자신의 선택들의 결과물입니다. 즉 혈연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골육을 이고 살 것을 요구한다면 학연은 철저히 자신이 일궈내고 싶으면 마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택의 과정속에서 우리가 성장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학연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증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과거사를 응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몇몇 마음에 안들던 친구도 있었지만 결국은 친하고 마음에 와닿는 친구가 되는 것도 이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젊음의 시기를 함께 보낸 그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한 두뇌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각자 무엇을 해도, '어허, 그 친구 그 일을 해? 잘할거야' 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연(緣)을 어떻게 꽃을 피워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모든 잡다함을 추스려 핀다 합니다. 그 모든 잡다함을 다스리는 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도 한켠에서 굳건히 듭니다. 혈연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과거사와 역량이 결집된 학연을 향용 상기하셔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후배 동문 여러분, 개개

인의 혈연과 지연이 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던 경제학과(부) 학생시절을 한 번 생각해 볼때도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인연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동문기고2

경제학부소식

교수동정 학부행사

교수동정

1. 인사

강광하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2000.11.13 - 2002.11.12
김신행	사회과학대학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2000.11.13 - 2002.11.12
이준구	사회과학대학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00.07.01 - 2002.06.30
이지순	연구비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	2000.11.13 - 2002.11.12
이천표	재단법인 제원연구재단 이사	2000.08.03 - 2004.08.02
정영일	재단법인 제원연구재단 이사	2000.08.03 - 2004.08.02
정운찬	사회과학대학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00.07.01 - 2002.06.30
표학길	(주)영원무역 사외이사	
홍기현	연구공원 창업보육센터장 겸무	2000.10.09 - 2002.10.08
홍원탁	(주)대신증권 사외이사	
박준용	한국채권연구원 비상근 이사 겸직	2000.10.31 - 2002.10.29
이창용	한국채권연구원 비상근 이사 겸직	2000.10.31 - 2002.10.29
김선구	신규임용(부교수)	2000.09.01
이인호	경제학부 부교수로 신규임용 예정	2001.03.01
이상승	경제학부 부교수로 신규임용 예정	2001.03.01

2. 외국방문

김세원	아일랜드	학술회의 참석	2000.11.19 -2000.11.22
김수행	영국,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연구자료수집	2000.07.02-2000.08.19
박우희	미국, 캐나다	연구자료수집	2000.08.01-2000.08.13
안병직	일본	심포지움참석	2000.11.25-2000.12.03
이승훈	파키스탄	연구자료수집	2000.07.08-2000.07.14
이승훈	스페인	학술회의 참석	2000.07.23-2000.08.04
이승훈	대만	연구자료수집	2000.11.26-2000.11.28
이지순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07.08-2000.07.12
이지순	중국	연구자료수집	2000.07.29-2000.08.01
이천표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07.31-2000.08.15
이천표	일본	학술회의 참석	2000.11.02-2000.11.06
이천표	일본	심포지움 참석	2000.11.26-2000.11.29
전영섭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06.30-2000.07.07
전영섭	미국	학술회의 참석	2000.08.07-2000.08.18

전영섭	스페인	학술회의 참석	2000.07.23-2000.08.04
표학길	미국, 일본	연구자료수집	2000.07.25-2000.08.21
표학길	미국, 일본	세미나 참석	2000.11.27-2000.12.03
박준용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08.03-2000.08.25
이 근	영국	학술회의 참석	2000.06.28-2000.07.02
이 근	중국	세미나 참석	2000.08.28-2000.08.31
이 근	싱가포르	연구자료수집	2000.11.17-2000.11.19
이 근	대만	연구자료수집	2000.11.26-2000.11.28
이창용	싱가포르	학술회의 참석	2000.11.16-2000.11.19
이철희	미국	연구자료수집	2000.06.30-2000.08.23

2. 학부행사

1. 교무

1) 1999학년도 후기 졸업식
▣일시 및 장소 : 2000. 8.29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
▣학위수여자
박사 : 박경로, 송홍선, 지만수 이상 3명
석사 : 손창호 등 총 9명
학사 : 강휘방 등 총 43명(우등졸업대상자 :
김희재 등 총 11명)

2) 2001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특차모집 실시
▣석사과정 총29명 지원, 25명 합격
▣박사과정 9명 지원, 7명 합격

3) 2001학년도 고등학교장추천입학전형
▣66명지원, 22명 합격

2. 학생

1) 하계 농촌봉사활동(2000. 6.30. -7.9.)
▣참가인원 : A반 28명, B반 40명, C반 38
명(연인원)
▣오성환 부학부장 현지 방문 (7. 5.), 조교3
인 방문 (7. 4. ~7. 5.)

2) 200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생 선정
▣학사 : 총 367명 (A급: 45명, B급: 34명, C
급: 282명, 발전: 6명)
▣석·박사 : 총 43명 (A급: 3명, C급: 34명,
발전: 7명)

3) 상대동창회 향상장학금 수여식 (2000. 8. 23.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
▣수혜자: 강현철 외 14명
▣이천표 학부장 참석

4)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수여대상자 추천:
2000학년도 박사학위수여자중 2명
▣김봉주,「베이즈메커니즘에 관한 세 논문」,
2000년 2월
▣박경로, 「대공황시기 시카고의 은행위기:
기업지배구조와 위험전가를 중심으로」,
2000년 8월.

5) 우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00.9.19. 경제학부 세미나실)
▣수혜자: 김경민(평점평균 4.10) 외 9명
▣이천표 학부장, 오성환 부학부장 참석

3. 행사

1) 2000학년도 제7회 경제학부 동문초청강연회
▣일 시: 2000. 11. 8.(수) 오후 3시30분
▣장 소: SK경영관 국제회의실
▣연 사: 손길승회장(SK그룹회장)
▣제 목: “21세기 기업변혁과 경제학도의

역할”
▣인 원: 교수 11명, 학생 300명

4. 기타

1) 조교 신규 임용
▣정경화 : 2000. 8. 1. – 2001. 7.31.
▣오혜정 : 2000. 8. 1. – 2001. 7.31.

2) 경제학부 체육대회
▣일시: 2000. 10.28. (토)
▣장소: 본교 체육관
▣인원: 학생 150명, 교직원 10명 참석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4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교수기고



나의 경제학 33년

박 우 희(경제학부 교수)

나의 경제학편력은 1954년의 대학입학때부터는 46년, 1967년의 대학교수때부터 치면 오늘까지 꼭 33년이 된다. 긴 세월이며, 이렇게 보면 나는 평생 경제학 속에서 살아온 셈이다. 무턱대고 읽고 쓸 때나, 좀 생각하고 연찬할 때, 또 남을 가르치고 자문할 때도 경제학을 떠나 본 적이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때는 6·25 동란직후라 경제학다운 경제학을 배운 적이 거의 없었다. 이론이 무엇인지, 모델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보다 부기, 상법, 영어시문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래서 대학밖을 돌면서 영어번역, 기자, 외교관으로 시간을 보냈다. 졸업후에도 그랬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버리지 못하였고, 그렇게 나다닐 때도 경제학저서 번역과 경제관련 실무에 종사하면서 실생활에서 틈틈히 경제이론을 익혀 나갔다.

이것이 주효했던지 모교 강단에 서게 되었고, 그간 경험했던 실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론에 관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해 영국정부 장학금으로 맨체스터 대학원 석사 1년과정에 들어 갔고, 이어 2년간 기간연장하여 워릭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이 때 경제학다운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지금 나의 경제학은 그 때 배운 것과 그 후 옥스퍼드와 동경대학에서 연구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이런 경제학 편력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발전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서울대 경제학의 50년대는 혼란기였고, 60년대는 정비기였다. 70년대부터 겨우 발전의 기틀이 잡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수준과 내용의 학부가 되었다. 물론 아직 미흡한 점, 문제점이 많긴하나, 5~60년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나는 운 좋은 교수였다. 동료들과 학생들의 분에 넘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내 능력이상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지난 33년간 밖에서 이런 저런 유혹이 여러번 있었으나, 이렇게 남아 정년퇴임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의 정성어린 충고때문이었다. 그간 영어로 런던에서, 일어로 동경에서 책도 여러권 출간하였고, 외국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외국정부의 자문교수로, 또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등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녔다. 가장 가슴 뿌듯한 것은 내 책이 옥스퍼드대에서 부교재로, 또 동경대 중앙도서관 선정도서로 비치되었다는 것이고, 서울대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술경제학 강의를 개설했던 것과, 기술분업이론이 일본등지에서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등이었다. 물론 부끄럽고 미진하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나의 학문적 족적을 지금 지나고 나니 우연과 경험의 소산이라 생각되기도 하나 결국은 내 취향과 성격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내가 법학이나 정치학보다 경제학을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때 우연히 네빌 케인즈(존 케인즈의 아버지)의 책을 접한 때문이었고, 국제경제학을 택한 것은 내 경험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마지막으로 정성을 기우리고 있는 기술경제학과 경제학설, 사상사등은 내 취향때문이었다고 본다. 결국 자기 취향에 맞는 학문을 해야 재미있고 어느 정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지 않나 여겨진다.

나는 지난 4~5년간 [제2경제원론: 경제원리의 바탕, 밥법과 모습], [한국자본주의의 정신]의 집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일본 경제사상사]와 [자유로서의 개발]을 번역하고 있고, [기술경제학 개론]의 공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모아 퇴임때 이 책 출간에 도움을 준 분들만으로 저작집 출간기념식을 가질 계획이다. 대학을 떠나면서 후배교수들에게 놀지 않고 그래도 학문에 정성을 다했다는 표징만이라도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제 2경제원론]과 [한국자본주의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수정, 보완하면서 종교에 연결, 마무리하고 싶다.

대학을 떠남에 즈음하여 동료 후배 교수들에게 한 두가지 소회를 밝혔으면 한다. 먼저 서울대 교수로서 후세에 기리 남을 책 한, 두권을 내 봄이 어떨가 생각된다. 리카도나 케인즈와 같이 증권으로 치부하거나 관직을 갖는 것이 경제학자로서 꼭 멀리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시세에 편승하거나 좌고우빙함이 없이 후세 학자들이 마음으로 추앙하는 글을 남김이 얼마나 보람되는 일인지, 나는 이제 겨우 자성하고 있다. 이러한 글은 초임때부터 틀을 잡고 속을 채워나가야지 거리에 시간을 버리다 마지막 몇 년 동안 끝매금 해보려했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 젊은 나이로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회의 느낌이 착잡하다.

또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좀 더 폭 넓은 교육을 시킴이 어떨까 생각된다. 지금 교과목으로선 너무 주류경제학 일색이며, 이것으로는 뉴 밀레니엄과 새 경제여건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이상적 인간상, 새 비젼을 제시하는 교과목 외 수련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다 새 이론을 개척할 능력을 키워 주는 좀 더 창의적인 교과목이 더 보태어졌으면 한다. 지금으로선 독창성없는, 또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없는 두뇌구조공장, 전문분화로 인한 바벨탑, 과학의 조작성과 진리부

재, 그래서 wisdom보다 cleverness에 치우치는 학생을 양산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서울대는 큰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경제학이 갈망되고 있다.

이제 대학을 떠나면서 마음이 후련하다. 새 길, 새 생활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은 '경제' 다음의 '종교'가 아닐까 스스로 자문해 본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nics SNU
제004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전문경영자는 오너와 파트너다

손 길 승(SK그룹회장)

며칠 전 우리는 세계적 대기업 GE사와 AT&T사가 새 회장을 선임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임 CEO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오너의 인척관계와는 무관한 전문경영인이었다. 이 뉴스가 알려지기 얼마전 한국 신문의 헤드라인은 한동안 "현대 그룹 부도위기", "대우 자동차 부도" 등 굵직굵직한 재벌들의 수난시대를 보도했다. 나라 안팎으로 재벌오너체제에 대한 도덕적/경영학적 공격이 힘을 얻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도대체 누가 전문경영인이란 말인가?"라는 항변도 들린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등장한다는 단어 'Chabol'. 오늘날, 재벌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한국경제를 이해할 수 없고, CEO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재벌을 알 수 없다. 지난 11월 일, 우리학교 경영대 …에서 열린 SK 손길승 회장 초청 강연회가 학생들의 관심을 모은 이유도 이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의 CEO로서는 드물게 '순수한' 전문경영인인 손길승씨. 경제학부의 전신인 상과대 ..학번인 그는 경제학부…의 초청으로 ….명의 학생들에게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 주었다.

손길승 회장은 …세의 나이답지 않게 정력적으로 보였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그는 먼저 자신이 회장이 되기까지의 역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당시 선배들은 정부라든지 은행같은 곳으로 많이 갔지만, 자신의 동기들은 주로 산업체로 많이 취직했는데, 자신도 중소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것이 지금 인생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 해 졸업생들은 교수들로부터 '지금이 한국의 산업이 부흥할 때이고 똑똑한 인재는 산업체로 가야한다"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와 현 시대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설명한 후 SK의 새 캐치프레이즈 '슈펙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1세기에 살아남아서 경제를 이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엑설런트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엑설런트중의 엑설런트인 '슈퍼 엑설런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슈퍼 엑셀런트를 간단히 줄인 말이 "슈펙스"라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 못지 않게 클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일본-중국을 잇는 동북아시아 무역권을 구축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들의 관심사였던 오너경영인의 문제는 역시 빠지지 않았다. 그는 전문 경영인과 오너경영인과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SK는 한국 기업 경영사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경영인과 오너경영인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 두 장점이 결합되면 기업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최태원 공동회장과의 2인 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강연 중간 중간에 손회장은 유머를 발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가 "한국 사람들은 기업가들에게 너무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상 돈을 만지며 쓰는 게 업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학교수처럼 깨끗해 질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강연이 길어지면서 질문 시간은 당초보다 줄어들었다. 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손회장은 "SK가 최근 벤처와 관련해 하는 사업은 벤처가 하는 일을 뺏는다기 보다는 벤처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해고시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 쯤 되는 사람들을 해고시킬 때는 그들의 명예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애쓴다. 일반 사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미리 통고를 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여유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후 손회장은 경영대와 경제학부의 교수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1시간을 내는 것이 1억을 쓰는 것과 같다는 대기업의 CEO가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연장을 빠져나왔던 청중들은 경영대 건물앞에 우뚝 박혀있는 'SK 경영관'이라는 표석을 다시금 쳐다보았다.

인터뷰- "서울대생들은 패기가 부족해"
SK 손길승 회장은 강연이 끝난후 사회대 6층 교수지원실에서 경제학부소식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Q: 지금 CEO 주식시장에서는 회장님의 순위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경영자중에서 회장님은 대중적으로 무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A: 제가 좋은 CEO로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SK의 호의적인 기업이미지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K는 지금까지 참신한 기업이미지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좋은 CEO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데는 '전문경영인'이라는 평가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연에서 전문경영인과 오너경영인의 장점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의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너경영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기업이 오래 존속하려면 오너경영인이 튼튼해야 합니다. 오너경영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고 전구성원이 합의한 좋은 기업문화가 만들어낼 수 잇습니다. 이렇게되면 비로소 기업이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기해 볼 때 오너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Q: 올해들어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는 등 동북아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시장등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많은 다른 기업에서도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k그룹이 다른 기업에 비해 동북아시장에 우위에 있다거나 비전이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요?
A: SK는 10년이상 중국에 투자해왔습니다. 중국은 2050년에 세계 초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한국과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중국 속에 SK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SK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사업경험을 통해 동아시아의 마켓리더가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짱웬방(狀元榜) 같은 장학사업을 후원함으로써 중국과 문화적인 유대를 형성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Q: 최근 IMT-2000 사업을 비동기식으로 결정한 것도 중국시장때문입니까?
A: 물론 중국시장을 비롯해 세계시장의 80%가 비동기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일본도 비동기식이 주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비동기를 택해서 그 사람들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기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동기식을 여러차례 권유했지만 우리나라 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비동기식을 택했습니다.
Q: 최근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SK 그룹도 계열사를 분리할 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SK 그룹이 앞으로 더 추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까?
A: 구조조정이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SK는 에너지화학 및 정보통신을 주축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유사한 업종의 계열사를 합병하는 등 핵심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 차원의 구조조정은 IMF 이전부터 각사가 경쟁력 재고 차원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추가적인 계획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Q: 과거 서울대 상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A: 당시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책도 없었고 교육 내용도 부실했죠. 사회에 나가보니 내가 배운 것은 거의 활용될 것이 없더군요.
학생들은 지금보다는 엘리트 의식이 강했습니다. '다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Q: 취업시즌을 맞아서 서울대생들은 진로를 모색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은 대기업으로 가는 것보다 프리랜서처럼 자유스런 직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A: SK 그룹은 어느 기업보다도 자유스런 분위기에 창의성을 독려하는 회사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발휘하려면 우리 기업으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대기업은 서울대생들을 별로 반가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A: 기본적으로 서울대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다. 기업으로서는 잠재력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고 싶어하므로 서울대생들을 원합니다. 다만 서울대생들은 패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Q: 대학교육에 대해 바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A: 사회가 원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대학이 여건을 뒷받침해주지 못해 부실한 교육을 했다면 지금 대학 교육은 너무 이론 중심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론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Case-Study 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동문기고2



"고시공부 되도록 하지마라"

이 원 희(경제학부91)

국무조정실-심사평가1심의관실 사무관

제목에 맞는말을 하기 위해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 모르겠군요. 아직 인생을 3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인생 초보자가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란 걸 그저 먼저 길 떠난 나그네가 뒤따라오는 동료들에게 던지는 애정어린 충고 정도로 받아들이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

제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쓰겠습니다. 먼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학부 교수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 글을 맺겠습니다.

우선 후배님들 중에서 고시든 유학준비든 취직 준비든, 아직 어느 것을 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잘라서 얘기하면 고시공부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공부로 대학과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세상은 고시라는 국가고시체제가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체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시공부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급변하는 세상과 최소한 2년간 떨어져 있게 되고 그 만큼 경쟁력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유명 law firm인 K 회사의 경우 recruit 조건은 변호사 자격증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식과 경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둘째, 고시 합격 후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낮은 보수와 긴 근로 시간에 대해 사명감 하나만으로 버텨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정부내의 비효율과 맞서야 합니다. 자신 있으신 분만 시작하십시오.

대신 자신만의 상대적 우위를 키워 나가십시오.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컨대 경제학적 바탕위에서 재무회계 부분에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한다든가, 국제금융과 파생금융상품 이론에 정통하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근무하는 분야의 특성상 각 분야 최고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나라에는 진정한 전문가(maven)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학점이 4.3에 근접한 사람은 칭찬보다는 반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미국의 top MBA는 학점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인 능동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더군요.

다음으로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시 공부를 하기로 하셨으면 합격을 목표로 기한을 정하십시오. 기한 내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특히 행정고시는 제 경험과 행정부에 들어와서 알게 된 지식에 따라 판단할 경우 공부기간과 점수가 비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고 특화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십시오.(예컨대 회계와 상법은 경제활동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유용한 tool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고시 합격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고시합격 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공무원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소중한 경험으로 삼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career가 공무원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관리해야 할 하나의 경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학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며칠 전 기술과 진화라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경제학부에 다니는 한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부 학생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에 새삼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경제학부 학생들이 사법고시 해서 안되는 법은 없지만, 경제학부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vision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후배들이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고 우와좌왕 하고 있다면 그들이 사법고시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수님들이 나서서 다양한 인생경험을 소개하고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짜여진 curriculum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감히 바꾸어서 학생들이 경제학부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언부언 너무 말이 길었군요. 딴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지나치게 세속적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부 후배분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